

공동의 이익과 관심 반영해야

교수

대학주보의 나이가 한살 더 늘어난다.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주보의 경우에도 나이가 늘어나는 것은 단지 연륜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깊어지고 그 만큼 의정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나이 하나를 더하면서 대학주보가 더욱 성숙된 모습을 갖추게 되리라고 굳게 믿으며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한다.

대학주보는 활자매체로서는 우리 학교를 대변하는 유일한 공간이다. 대학주보는 경회인 누구보다 우리 신문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가까이할 수 있는 경회인 공동의 언론의 광장인 것이다. 대학주보가 그동안 우리 신문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누구나 생일을 맞이하면 조금은 숙연한 기분으로 반성을 하는 것처럼, 대학주보도 나이에 하나를 늘리면서 엄숙한 자세로 대학주보의 오늘을 되돌아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 대학신문의 대학안에서의 위치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대학신문은 대학의 홍보지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학신문은 대학생들의 신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학신문은 단순히 대학의 홍보지일 수도 없고, 또한 대학생들의 이념만을 대변하는 기관일 수도 없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학에 따라서 대학신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신문이 대학안에서의 위상은 어떤

것이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학신문이 대학이라는 한 공동체를 대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별로 무리하지 않은 자리 매김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대학을 구성하는 집단들중의 어느 한 집단을 두둔하고 다른 집단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대학신문이 대학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들의 공동의 이익, 공동의 관심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대학주보도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과연 대학주보가 경회대 학교라는 공동체의 공동성을 망각한 적은 없었는지를 반성해봄으로써 대학주보는 경회인들의 결로 한 결을 더 성숙 다갈 수 있을 것이다.

신문을 놓고 아카데미즘을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대학신문이 일반신문과 다른 점은 어떤 문제를 학문적인 관점, 곧 원리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라는 집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신문이 아니면 보여주기 힘든 시각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이를 위한 인적 구성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학신문의 장점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그 신문이 갖고 있는 자원과 토대를 충분히 활용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학주보는 세심하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학주보를 좀더 성장시켜줄 수 있는 풍부한 기반을 소홀히 함으로써 대학주보의 오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

았는가 하는 반성은 생일을 맞이해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반성해보아야 할 일일 것이다. 대학주보가 우리 학교안에서 그동안보다 더욱 더 알찬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믿으며, 대학주보에는 오직 성장과 발전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계기로 하나라도 활자의 탄생을 이야기 하듯 활자가 이루어 놓은 '활자문명'의 길은 바로 신문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문과 접하여 살고, 필요한 정보와 교양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우리 경회인은 매주 '대학주보'를 통하여 학내의 여러가지 사건 사고와 학술적 연구성과,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교양들을 접하게 된다. 학내에 여러가지 언론 매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실 '대학주보'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공신력을 지니고 있는 매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량과 규모에 있어서도 건실한 점이 없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대학주보'가 지고 있는 부담과 책임은 더욱 커진다. 대학의 언론은 기성의 언론과 차별적이어야 하며 역사발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기성의 언론이 그 본질을 왜곡하여 정권의 편이나 보수적 해석 또는 당파성은 무작위적 정보

언론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글로써 자기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여 논의를 함"이다. 그러나 언론의 보다 실제적인 의미는 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은 한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한 사회의 발전을 보조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시·고발하기도 한다. 언론의 방법에는 사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인간의 문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계기로 하나라도 활자의 탄생을 이야기 하듯 활자가 이루어 놓은 '활자문명'의 길은 바로 신문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문과 접하여 살고, 필요한 정보와 교양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우리 경회인은 매주 '대학주보'를 통하여 학내의 여러가지 사건 사고와 학술적 연구성과,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교양들을 접하게 된다. 학내에 여러가지 언론 매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실 '대학주보'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공신력을 지니고 있는 매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량과 규모에 있어서도 건실한 점이 없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대학주보'가 지고 있는 부담과 책임은 더욱 커진다. 대학의 언론은 기성의 언론과 차별적이어야 하며 역사발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기성의 언론이 그 본질을 왜곡하여 정권의 편이나 보수적 해석 또는 당파성은 무작위적 정보

의 장으로서 대학신문의 위상은 더욱 새롭게 빛나게 될 것임이다. 대학신문이 학내구성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진의 다양화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내문제에 취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게시관공은 발생된 사안에 대한 나열적 기사체제를 지양하고 사실에 근거한 신속 정확한 보도와 그 심층적인 배경 그리고 전개방향등을 입체적으로 다루어줌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

한 이해력을 가일층 제고시켜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아가서 해당사안에 대해 아카데미즘적인 해설기사를 부가한다면 대학과 사회의 가교역할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도 신념

학생

의 전달을 통해 여론을 조작, 또는 초월시키는 반동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언론이 지니는 의의와 책임은 이보다 클로써 행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 경회인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어야 할 '대학주보'는 올해로 창간 36주년을 맞이 한다. '대학주보'는 경회인의 사고와 의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왔는지를 제재주제인 기사개개인들은 한번쯤 반성하고 점검해야 한다.

물론 그동안 '대학주보'는 경회의 발전과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리라 믿는다. 또한 지금 이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때문에 '대학주보'에게 한마디 당부하고 싶다.

첫째는 학내에 대한 관심, 둘째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학술적인 해석, 셋째는 명확한 당파성과 일관된 논리, 네째는 앞서 언급한 세가지에 대한 균형과 조화이다. 아울러 또 한가지를 덧붙인다면 '기자의 중립성'은 대립물의 중간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기자개인의 정확한 가치판단에 의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고 하는 것'이라는 기자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대로 실천해 달라라는 것이다.

안 순 영(영교3)

명확한 당파성과 일관된 신념 지켜주길

대학이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

2월

5월주제 '축 제'



김진영 (문리대교수·국문학)

학문의 씨를 뿌리고 풍성한 결실을 기원하는 마당, 알찬 수확을 거두는 감사의 마당이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 축제란 그냥 놀아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 본래의 취지와 정신이 있을 터이다. 그들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면 이 험난한 물보라의 시대를 극복하는 한가지 방편도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중국의 옛 사서(史書)에 보면, 우리 민족의 축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축제의 본래 모형이었을지라도, 즉 축제란 한 마당의 신명나는 잔치로서 한 해 농사의 풍요를 비는 축원의 뜻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출하는 의식이었다. 잔치판을 벌였으니 무리가 모였고 거기에는 응당 음주가무가 있을 수

있다.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 신명놀이의 술, 노래, 춤 그것은 모두 수고한 자들의 풍성한 고 윤택한 삶에 대한, 수고한 자들의 성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뒤따르는 음주가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바쳐진 음료로 장기자랑인 셈이 있지, 그것 자체가 주목적은 아니었다고 본다.

상고대의 민족축제가 그랬다고 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학의 축제는 과연 어떠한가 할 것인가. 축제의 내용과 형식, 엄밀한 것만으로는 무엇이든 할 것인가. 사실 대학인들이 따지고 보면 또다른 농사꾼이 아닐 것인가. 논밭에서 직접 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만, 씨를 뿌리고 가꾸어 거둔다고 하는 점에서는 농사꾼임에 틀림없다. 다만 곡식 대신 학문이라는 결실을 맺어냈다. 그렇다면 대학의 축제는 마땅히 그 틀에 있어 학문의 씨를 좋은 밭에 뿌려서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원하는 마당, 넉넉한 학문의 수확을 거두는 감사의 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즉 학문을 위한 한마디 축제라 되어야 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대학인 내가 신 자리를 분명히 확인하고 확고히 하는 계기로 서 축제라 꾸며져야만 본래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기실 오늘 우리 사회의 온갖 부질없는 소용돌이도 원천적으로는 각자 제자리를 벗어나 제 몫조차 감당 못하는 데서 연유하지 않을까.

교수동정

김상민교수 도일

▲김상민(의대·안과)교수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안과 학회 참석차 일본방문 ▲배대경(의대·정형외과)은 오늘부터 25일까지 국제 관절경 및 WPOA학회 참석차 캐나다, 미국 방문

동문모임

구로고 동문회

【서울캠퍼스】 ▲성남교=오는 19일 오전9시, 대운동장 동문체육대회
【수원캠퍼스】 ▲구로교=오는 14일 오후 5시30분 외국어교육관 학생식당 ▲배정교=오는 17일

오후5시 공대 휴게실 ▲신목교=오는 14일 오후 5시30분 공대앞 잔디밭 ▲부산 금정교=오는 15일 오후 5시30분 공대 휴게실 ▲인천 송도 박문교=오는 15일 오후 5시30분 공대휴게실 ▲광주일교·전남여교=오는 오후5시30분



습득

본신자 본사편집실로

【서울캠퍼스】 ◆학생증=▲허용석(화학·86) ▲윤강원(생물·87) ▲정재학(화학·88) ▲신성희(수학·85) ▲박상민(화학·82) ▲정혜선(화학·87) ▲전원식(법학·87) ▲이경희(법학·87) ▲이승재(법학·90) ▲안명찬(경영·86) ▲배진환(경제·88) ▲이태균(회계·82) ▲이명근(무역·88) ▲정필중(정의·85) ▲원성준(정의·85) ▲정필원(경영·87) ▲백순환(경영·87) ▲김진태(무역·85) ▲김지희(영교·86) ▲박상재(가관·86)

교직원

계절의 여왕 5월에, 경회의 발전과 함께 각자의 대학사를 지켜온 대학주보 창간 36주년을 전 경회인과 더불어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간 대학주보는 1955년 5월12일 창간 이래 모든 각고와 역경을 뚫고 경회라는 이름아래 함께 숨쉬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장으로서 그리고 진리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대학신문이 대학사의 축소판이라고 볼때 그간 대학주보는 경회역사의 산 증인으로 경회문화의 창조적 매개체로서 경회가 명문사학으로 융비하기까지 발전의 선도적 전진자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경회의 역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갖은 난관에도 굴하

지 않고 발전했듯이 앞으로 대학주보가 대학문화의 발전과 역사의 증인으로 경회인 모두가 일체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새로운 대학문화의 창조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주보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학언론의 기수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편협된 시각을 고집하는 일부 기고가 중심의 편집기사와 기획기사가 체계적 그 확신을 배제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대학과 사회의 가교역할 수행

위해서는 보다 보편타당성 있는 자세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신문은 학술연구 및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대학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인만큼 일반신문과는 달리 편집이나 기사선택에 특색이 있어야했고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조화가 절실

시각을 가진 필자를 선정하여 보다 다양한 주장이 게재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학술연구관을 중심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학신문만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학문연구의 활성화 및 논쟁

한 이해력을 가일층 제고시켜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해당사안에 대해 아카데미즘적인 해설기사를 부가한다면 대학과 사회의 가교역할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도 신념

최 의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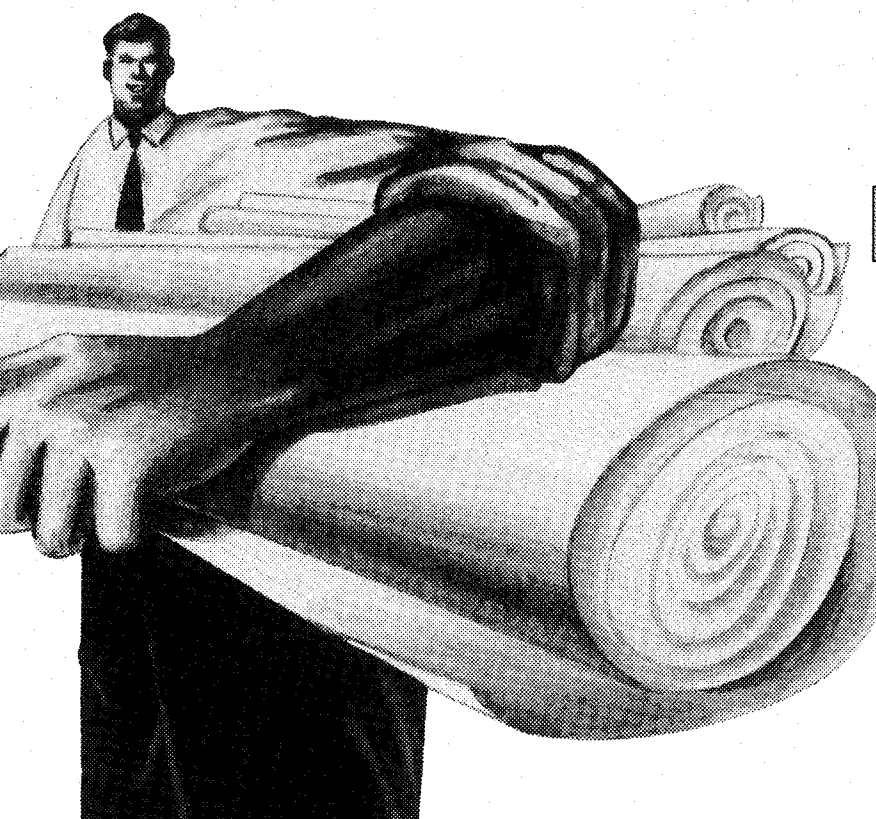
(수원캠퍼스·총무과)

하이테크의 숨결이 깃든 단1장의 엔진설계도 -

자동차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의 산실 - 마복리연구소 엔진설계부

20세기 과학 문명의 꽃 - 자동차의 엔진 / 고난도 기술집약체인 첨단 엔진개발을 위해 수백만 이상이나 설계 도면을 수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만여 가지의 부품과 기계장치들이 조화를 이뤄 인간생활을 더욱 편하고 유익하게 하는 자동차 / 설계 도면 한장 한장마다 뜨거운 정열을 쏟으며 첨단 자동차엔진의 꿈을 잉태하는 곳 - 이곳이 완벽한 하나를 위해 천(千)의 노력을 다하는 현대 마복리 연구소 엔진설계부입니다.



첨단 자동차 기술 - 우리가 이끌어간다.

독자적인 기술로 고유 모델의 엔진을 개발하는 일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초가 뒤따릅니다. 연비 향상을 위한 엔진의 경량화, 고성능화 및 저공해화를 위해 개입 설계에서부터 상품생산을 확정하는 최종 도면에 이르기까지 - 완벽한 하나를 위해 수개월, 수백만의 설계 변경을 감내해야 하는 엔진설계부의 연구진들 / 오늘도 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창조정신과 도전정신으로 한국 자동차 기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직,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지금쯤, 캠퍼스의 도서관 책더미속에서, 운동장에서, 실험실습실에서, 연구 무대위에서, 동아리방에서 멋진 학생생활을 꾸리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패기와 정열로 가득찬 젊은 엘리트들의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고 동시에 이깁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기 쉬운 진리의 길에서 굳건하게 도전하며 목표를 성취하는 이 땅의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